

## 히브리 성서의 전염병에 의한 집단적 죽음 이해\*

이은애(이화여대)

---

### 1. 들어가는 말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이고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 다가오는 본질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사람의 몸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명이 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역시 매우 구체적이다. 특히나 최근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누구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과 그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만연해있는 우리 시대와 사회는 죽음이라는 현실적이고 매우 급박한 문제 앞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대체로 죽음을 통해 산 자들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5752).

로부터 격리되거나 소외되기 때문이며 죽은 육신은 썩어서 추하게 변하게 되고 살아서 누리던 것을 다 빼앗기며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죽음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 죽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라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지만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 또한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공포의 감정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sup>1</sup>

그러나 실존하는 인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갖는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의 삶과 생명에 대한 숙고를 가능하게 하며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하게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죽음은 역사시대 이전부터 인간 최대의 관심사였다. BC 17세기 말 바빌로니아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길가메시는 자신의 친구 엔키두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풀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인간 삶의 공허함과 그 삶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sup>2</sup>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이해, 특히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적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해결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현대인들에게 죽음의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하게 하고 또한 그것의 집단적·사회적 의미와 해결

---

1 박충구, “죽음의 공포에 대하여”, 『기독교사상』 719호 (2018년 11월), 149-151.

2 구인회,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 (파주: 한길사, 2015), 263.

방안에 대한 종교적 제안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개인의 죽음에서부터 공동체의 집단적 죽음 공포로 전환되면서 겪는 사회혼란과 극복의 과정 등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죽음이 학문적인 주제로써 다루어지기 시작한 이래<sup>3</sup> 한국에서도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sup>4</sup> 기독교 신학 전 분야에서 죽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성서학 분야에서도 고고학적, 비교문화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sup>5</sup> 근래에는 코로나 위기 시대 속에서 구약신학의 과제를 찾는 노력도 행해졌다.<sup>6</sup>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구원이 가능해졌고 예수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은 부활의 전(前) 과정이자 전제로서 부활과의 변증법적 관

- 
- 3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죽음학(Thanatology)에서는 전통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각종 사회체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현상 및 관념을 그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E. 큐블러-로스, 「죽음의 시간」(고계영 옮김), (서울: 도서출판 우석, 1998), 원제는 Elisabeth Kübler-Ross, *On Death and Dying* (New York: Simon & Schuster, 1970).
  - 4 우리나라에는 1991년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가 만들어져 ‘죽음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고 2005년에는 ‘한국죽음학회’(회장: 최준식 교수)가 창립되어 죽음학 강연과 더불어 출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국에서도 웰다잉(well-dying)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 5 김관진, 「죽음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정원범, “죽음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접근”, 「생명 신학 윤리」,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 5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3), 191-219; 김학도, 「한국의 전통상제와 성경적 장례의식」(서울: 바른신앙, 1991); 우택주,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례의식”, 「성경과 신학」 26권 (1999년 11월), 29-57; 박신배, “구약의 죽음과 문화”, 「죽음-삶의 현장에서 이해하기」, 한국문화신학회 7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4), 44-67; 한상인, “이스라엘의 매장제도”, 한상인,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고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89-218; 김영진, “고대 이스라엘의 죽음에 대한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2집 (2004년 1월), 95-113; 이희학, 「구약성서와 조상숭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이은애,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매장의 권리: 실정법에 대항하는 자연법적 요구”, 「구약논단」 72집 (2019년 6월), 12-35 등.
  - 6 강성열, “코로나 위기 시대와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논단」 82집 (2021년 12월), 216-256.

계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sup>7</sup> 그러나 히브리 성서에서의 죽음 이해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이며 죽음은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고 보는 신학적 인간 존재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죽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공동체적 의미로 전환되어 텍스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화형태의 기억으로 전승되었으며 그 문화적 기억<sup>8</sup>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히 전염병에 의한 집단적 죽음을 서술하고 있는 히브리 성서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오늘날 한국 사회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집단적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그에 대한 해결모색에 현대 사회가 그리고 종교 공동체가 취해야 할 태도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2. 전염병에 의한 집단적 죽음 본문들

히브리 성서는 죽음에 대한 고대 인간과 사회의 의식과 태도를 보여준다. 개인적인 죽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고 죽음과 관계된 모든 의식과 행위는 그의 가족이나 친족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지속하게 하는 실존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히브리 성서는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집단적 죽음에

7 박형국, 「죽음과 고통, 그리고 생명: 신학적 이해」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5), 94-95.

8 '문화적 기억'이란 얀 아스만(Jan Assmann)과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이 '집단적 기억'으로부터 발전시킨 개념인데, 저장된 기술(ars)로서의 기억이 생산적인 활력(vis)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텍스트, 상징, 유물, 기념비 등과 같이 의미의 전승과 수용에 관여하는 기억을 가리킨다. 이광복,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39권 (2007년 9월), 30-31.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전쟁이나 전염병,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대량 죽음에 의해 대표된다. 히브리 성서에서 이 대량 죽음은 주로 공동체의 종교적 범죄에 대한 신적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량 죽음을 가져오는 세 가지 재난은 보통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주어진다(레 26:25; 신 28:20-24 등). 이번 연구에서는 히브리 성서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기록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려고 한다.<sup>9</sup> 전염병에<sup>10</sup> 의한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 죽음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방편으로 묘사되고 있다.

히브리 성서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구체적인 숫자의 대량 죽음이 일어난 세 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은 광야 시대에, 한번은 다윗 왕국 시대에 일어났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형벌로 주어지며(민 16:41-50)<sup>11</sup>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 즉 바알브올을 섬기는 일 때문에 발생한다(민 25:1-9; 31:16).<sup>12</sup> 가나안 정착 이후 다윗

9. 열병 혹은 재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벌로 예고된 경우(예를 들면 레 26:25; 신 28:21 등)나 빼앗은 언약계 때문에 심한 피부병인 독한 종기 ‘오팔림(אִפְלִימִם)’으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경우(삼상 5-7장)는 ‘열병’으로 번역될 수 있는 ‘함마게파(חַמַּת־הַמָּוֶת)’가 사용되지 않았고 죽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범위에서 제외했다.

10. 개역 개정에 ‘열병’으로 번역된 ‘함마게파(חַמַּת־הַמָּוֶת)’는 동사 나가프(נָגַף)에서 파생된 것으로 직역하면 ‘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전염병으로 대표되는 재앙을 의미한다(출 9:14; 겔 24:16; 숙 14:12; 출 7:27; 12:13; 30:12; 민 14:37; 수 22:17). 필립 J. 부드, 「민수기」(박신배 옮김), (WBC 주석; 서울: 솔로몬, 2006), 337. 원제는 Philip J. Budd, *Numbers* (WBC 5; Waco: Word Books, 1984).

11. 차일즈(Brevard Childs)의 구분에 의하면 민수기의 이 본문은 원망과 불평 설화의 두 번째 패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형태는 ‘백성들의 원망 - 하나님의 분노와 형벌 - 모세의 중재 - 형벌이 그침’이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Brevard Childs, *Exodus* (London: SCM Press, 1982), 258 이하.

12.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행위는 전염병의 근거로 나타나는데(민 25:14) 그것은 성적이거나 결혼 문제가 아니라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것과 연

왕국 시대에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을 형벌로 내려서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다(삼하 24:10-25).<sup>13</sup>

이 논문에서는 성서의 텍스트가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적 죽음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담지하고 전승해나가는지 본문비평과 역사비평적 방법으로 살펴볼 것이며 세 본문들이 그 상황과 용어, 구조와 내용 등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으로 본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상호텍스트성은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용, 번역, 모방, 패러디 등의 범주로 텍스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4</sup> 성서의 본문들을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질병에 의한 집단적 죽음 이해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 1) 지도자의 권위 도전에 대한 징벌(민 16:41-50): 공동체 내부의 갈등

이 본문은 고라, 다단, 아비람이 중심이 되어 족장 250인과 함께 모세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는 땅이 갈라져 삼킴을 당하고 250인은 회막 앞에서 하나

---

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립 J. 붓드, 윗글, 462-463.

13 야웨의 진노는 다윗 왕이 야웨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불신앙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삼상 14:6; 사 31:1) A. A. 앤더슨, 「사무엘하」 (권대영 옮김), (WBC 주석; 서울: 솔로몬, 2001), 462. 원제는 A.A. Anderson, 2 *Samuel*, (WBC 11; Dallas: Word Books, 1989).

14 율리아 크리스테바(J. Kristeva)가 발전시킨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ät) 개념은 텍스트가 대화성(Dialogizität)과 다성성(Polyphonie)의 구조를 가진다는 러시아 학자 미하일 바흐친(M. M. Bachtin)의 주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텍스트의 언술들은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대화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말의 의미는 텍스트의 대화적 관계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복, 윗글, 35.

님의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민수기 16장 1-35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라는 '레위의 종손 고탓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민 16:1)로 소개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주장한 유일한 권위에 도전한다(민 16:3). 모세는 그 도전자들에게 '레위 자손들'(민 16:7, 8, 10 등)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향로 시험을 통해(민 16:6 이하)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곧 아웨 하나님에 대한 도전임을 증명한다(민 16:11).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국시대 그리고 좀 더 후대의 포로 이후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계급과 세력다툼이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5</sup>

그 뒤에 이어지는 16:41-50 (히브리어 성서<sup>16</sup>에서는 17:6-15)는 불평-신현현-심판-제의적 원인론(cultic etiology)의 구조로 되어있으며<sup>17</sup> 앞부분과는 달리 몇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עַם יְהוָה) 혹은 회중(עַרְבָּ)으로 표현된 전체 백성들의 범죄로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시작되었을 때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속죄함으로 전염병이 그쳤다고 기록되어 아론 만이 분향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sup>18</sup> 이것은 16장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 제사장 계급과 레위인의 갈등과 대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sup>19</sup>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에서 성전 중심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사장 기자에 의해 확대, 서술되었

15 필립 J. 붓드, 윗글, 324-328.

16 이후로는 MT(Massora Text)로 표기한다.

17 Thomas B. Dozeman, *Numbers* (The New Interpreter's Bible Commentary Volume I; Nashville: Abingdon Press, 2015), 757.

18 이 사건은 '씩난 지팡이'(민 17)와 함께 아론의 제사장적 중보지위의 유일한 합법적 지위의 증거를 보여준다. 김회권, 「모세오경 2」(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55.

19 필립 J. 붓드, 윗글, 333-334.

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20</sup>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가리키고 덜 위계적인 의미를 갖는(민 11:29) 반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중’(민 16:41)이라고 부르는 것<sup>21</sup> 또한 제사장 그룹의 수사적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민 16장 앞 부분의 고라 사건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야웨의 백성인 자신들을 죽인다고 원망하고(민 16:41) 회막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백성 사이에서 전염병이 시작된다(민 16:42-46). 온 회중 앞에 야웨의 영광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한다’고 말씀하신다(민 16:45). 여기서 전염병은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세의 명령을 받은 아론이 제단 불을 담은 향로를 들고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민 16:47)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전염병은 그쳤다(민 16:48). 그 일로 죽은 자는 14700명이나 되었다(민 16:49).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불평 또는 불신에 대한 징벌로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제사장 아론의 중재역할로 전염병이 그치게 된 것이다. 제사장 아론은 제단의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는데 아론이 회중 사이로 가지고 들어간 그 향로는 아마도 재앙을 막는 액막이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22</sup>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데 피가 아니라 향로

20 우택주, “민수기의 군주시대 전승과 그 제사장적 편집 작업에 나타난 수사적 의도”, 『구약논단』 54집 (2014년 12월), 177.

21 ‘회중’은 제사장 기사가 선호하는 표현이다. Thomas B. Dozeman, 윗글, 757-758.

22 Martin Noth, *Numbers* (OTL; London: SCM Press, 1968), 130.



를 가지고 속죄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하다.<sup>23</sup>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48절)<sup>24</sup> 전염병이 그쳤다는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제사장의 권위 뿐 만 아니라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사장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죽음의 병에 걸린 회중들을 치료하고 죽음의 한 복판에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치유와 치료자인 것이다.<sup>25</sup> 고라의 반역사건(민 16:1 이하) 이후 거룩하게 되어 제단을 싸는 첩판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민 16:37-40)이 된 향로 또한 제사장의 권위와 결합되어 이제 속죄와 치유의 능력과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이방신 숭배에 대한 징벌(민 25:1-18): 이방 민족과의 관계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백성들의 죽음에 관한 또 하나의 기록은 모압 신인 바알브올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싯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배교에 하나님은 진노하고(민 25:3, 4) 그 진노를 그치기 위해서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이고(민 25:4)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는 바알브올과 결합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민 25:5).<sup>26</sup> 3-4

23 Thomas B. Dozeman, *윗글*, 758.

24 이것은 명백히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에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레위기의 제사장 법(레 21:11)에 반하는 것이지만 본문에서 아론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제의적 정결을 버리고 이 일을 감행한다. R. Dennis Cole, *Number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3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272.

25 왕대일, 「민수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403. 구약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복구시키기 위한 제사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죄 용서에 필수적인 진실한 회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선복, “제사법의 회개에 나타난 책임과 회복의 윤리: 아셈(אָסֶם)동사와 레위기 6장 1-7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4집 (2022년 6월), 131.

26 이스라엘의 이방신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에 관한 이 본문(민 25:1-5)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과 평행을 이룬다. Thomas B. Dozeman, *윗글*, 800.

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져있지 않지만 민수기 16장 46절(히브리어 성서 17장 11절)에서 ‘진노’와 ‘염병’은 사실상 동의어이며 따라서 민수기 25장 3절의 ‘진노’는 전염병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8-9절에 가면 그 진노가 전염병으로 나타났으며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7</sup> 그러나 앞의 4-5절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민 25:7)가 이방여인과 함께 온 한 이스라엘 남자를 그 여자와 함께 죽임으로써 전염병은 끝나게 되고 백성의 수령들과 바알브올을 섬기는 다수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본문은 이방신인 모압신에 대한 숭배(민 25:1-5)와 미디안 여자와의 결혼(민 25:6 이하)이라는 두 이야기가 결합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드러난다.<sup>28</sup> 두 이야기는 성적인(sexual) 이미지로 결합되는데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자들과의 성적 관계를 통해 야웨가 아닌 이방신 숭배를 정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렘 2:20; 호 2:7; 4:13-14).<sup>29</sup> 이스라엘의 죄악은 야웨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명령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 야웨 앞에 목매어 달라...’(민 25:4)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한 명령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민 25:5)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세의 지시는 하나님의 징벌이

27 필립 J. 붓드, 윗글, 459. 이것은 또한 민 26:1(MT 25:19) 본문이 ‘전염병 후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입증된다.

28 Thomas B. Dozeman, 윗글, 800.

29 이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자와의 결혼이 이방신 숭배로 이어진다는 신명기적 경고(신 7:2-4)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Josebert Fleurant, “Phinehas Murdered Moses’ Wife: An Analysis of Numbers 25”, JSOT Vol.35.3 (2011), 293.

오직 죄를 범한 자들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sup>30</sup>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명백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범죄한 백성에게 임한 전염병과 제사장의 중재 역할이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지도자들의 죽음이 예고되고 백성들 중의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는 가운데 아론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10-13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투’(כַּזְבַּח)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배타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sup>31</sup> 비느하스의 행위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사장의 중대하고 결정적인 역할은 이방인과의 결혼과 이방신 숭배가 중요한 관심주제가 되었던 포로 이후 시대에 제사장 계급이 되었던 레위인 비느하스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제사장 기자(P 기자)의 저작이고 수정일 수 있지만<sup>32</sup> 공동체의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을 끝내고, 진노대신 화해를, 죽음대신 생명을 가져오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 106:28-31에 보존된 전승에 의하면 비느하스는 재앙가운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여 재앙을 그치게 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쇼페팀, שֹׁפְטִים)에게 한 명령(민 25:5)을 수행한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재판관, 즉 사사(쇼페트)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0 하나님의 진노는 범죄한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다음 세대에까지 확장된다(민 14:11-25). Thomas B. Dozeman, *윗글*, 802.

31 *윗글*, 803.

32 필립 J. 붓드, *윗글*, 461, 466.

### 3) 하나님 왕권 도전에 대한 징벌(삼하 24:10-25): 인간의 절대적 권력에 대한 경고

삼하 24장은 사무엘서의 부록에 속하는 것으로 형벌로서의 전염병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큰 기근(삼하 21:1-14)과 연결되어 있다. 삼하 24장은 본래 독립된 세 개의 이야기, 즉 다윗의 인구조사(1-9절), 예언자 갓의 제안과 3일 간의 전염병 재앙(10-17절),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18-25절)의 결합으로 보이지만<sup>33</sup>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으로 인한 백성들의 집단적인 죽음과 그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야웨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을 움직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sup>34</sup>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인구조사는 징집이나 세금징수 또는 강제노역을 위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집권화된 왕정을 공고히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sup>35</sup>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반대한 것으로 보이지만(삼하 24:3) 다윗은 다시 재촉하였고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끝낸다(삼하 24:8).

다윗의 인구조사는 ‘칼을 빼는 담대한 자’(삼하 24:9), 즉 군인으로 동원될 수 있는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인구조사가 세금이나 강제노역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으나<sup>36</sup> 군사적 성격이 강한 것

33 A. A. 앤더슨, *윗글*, 459-460.

34 역대상 21장 1절에는 다윗을 유혹한 자를 ‘사탄’이라고 함으로써 야웨를 악의 선동자로 이해하지 않게 한다.

35 임효명, 「사무엘하」 (연세신학백주년기념 성경주석;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316-317.

36 이러한 인구조사는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에는 분명히 강제노역과 세금부과의 근거가 되었다(왕상 4:7-19, 27-28, 5:13-14). Bruce C. Birch, *1 & 2 Samuel* (The New

으로 야웨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즉 다윗 왕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되고 오직 야웨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삼상 14:6; 사 31:1).<sup>37</sup> 이런 점에서 다윗의 인구 조사는 왕이 백성의 자녀들을 취하여 종으로 삼을 것이라는 사무엘의 왕에 대한 경고 예언(삼상 8:10-18)을 상기시킨다. 다윗은 전문적인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필요에 따라 시민군을 소집하기도 했다.<sup>38</sup> 다윗은 고대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어했을 것이다.<sup>39</sup>

그 후 다윗은 자책하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데(삼하 24:10, 17)<sup>40</sup> 하나님은 예언자 갓을 통해 세 가지 형벌을 제시하고 다윗에게 선택하도록 하신다(삼하 24:12). 7년<sup>41</sup>의 기근, 3개월 동안 왕이 원수에게 쫓겨다님,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이 그것인데<sup>42</sup> 다윗의 분명한 선택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sup>43</sup>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한 것 같다. 윌터 부

---

Interpreter's Bible Commentary Volume II; Nashville: Abingdon, 2015), 625.

37 A. A. 앤더슨, 윗글, 462.

38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후 행정체계의 설립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대상 27:1-15) 이스라엘 안에서 핵심적이고 전문적인 군대 외에 열두 지파에 근거한 시민군 제도가 존재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Norman K. Gottwald, *The Tribes of Yahwe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Israel 1250-1050 B.C.E.* (London: SCM Press, 1979), 363-364.

39 Bruce C. Birch, 윗글, 625.

40 다윗이 어떻게 죄를 깨달았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삼하 24:10에는 맘에 자책하며 야웨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삼하 24:17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는 대신 다윗과 그의 집을 심판할 것을 구한다.

41 역대상 21:21에는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3년, 3개월, 3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옳은 독법으로 여겨진다. A. A. 앤더슨, 윗글, 458.

42 예언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으로 나란히 열거한다(렘 14:12; 15:2; 16:4; 겔 5:12; 6:12 등). F. 슈톨쯔, 「사무엘 상.하」 (박영옥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507-508. 원제는 Fritz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BAT 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43 MT에는 다윗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나타나있지 않지만 LXX에서는 다윗이

르그만(Walter Bruegermann)은 다윗이 원수와의 전쟁이나 자연적인 기근보다는 전염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으로 보았으며 야웨는 긍휼이 크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의 자비를 기대한 것으로 보았다(삼하 24:14).<sup>44</sup> 그러나 야웨 하나님은 전염병을 아침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이스라엘에 내리셨고 죽은 자가 7만 명에<sup>45</sup> 이르렀다(삼하 24:15). 그들은 다윗 왕의 죄를 감당하고 대신 죽은 ‘대리적 희생물’이 되었던 것이다.<sup>46</sup> 비르치(B. C. Birch)는 하나님의 자비가 다윗 왕의 회개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면 그는 또한 자비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제 족하다고 하시며 손을 거두어 재앙을 그치라고 명령하신다(삼하 24:16). 하나님은 진노를 후회하고 다윗은 죄를 후회하는, 이러한 신과 인간의 응답 안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놓여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이의 관계의 갱신 가능성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47</sup>

예언자 갓은 다시 다윗에게 재앙의 천사가 서있던 장소인(삼하 24:16),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야웨를 위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고 다윗은 그것을 따른다(삼하 24:18-19). 다윗은 그 땅을

---

전염병을 선택했고 그 재앙은 보리베는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말함으로써 뒤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윗글, 464; Hans H. Hertzberg, *I & II Samuel* (OTL, London: SCM Press, 1980), 413.

44 윌터 브루그만,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신지철 옮김), (서울: IVP, 2020), 63-64. 원제는 Walter Bruegermann, *Virus as Summons to Faith: Biblical Reflections in a Time of Loss, Grief, and Uncertainty* (Oregon: Cascade Books, 2020).

45 칠십인역과 역대상 21:14에는 7만 명, 마소라 본문에는 7만 7천 명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A. A. 앤더슨, 윗글, 464.

46 이것은 고대 근동의 대리왕 제도와 유사한데 구약성서에서는 개인 대신에 백성이 왕의 죄를 대신 지는 희생제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윤동녕, “대리 왕 제도의 관점으로 본 다윗 왕의 위기 극복과정”, 「구약논단」 57집 (2015년 9월), 143-144.

47 Bruce C. Birch, 윗글, 626.

은 오십 세겔을 주고 샀으며<sup>48</sup>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그쳤다(삼하 24:25). 본문에서 제단의 건립과 그 제단에서 드린 희생제사는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또한 재앙을 멈추신 야웨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sup>49</sup> 사무엘서의 마지막으로서의 이 본문(삼하 24장)은 사무엘서의 처음 부분인 사무엘상 1장 한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 안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50</sup>

### 3.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본 전염병에 의한 집단적 죽음

프랑스의 역사학자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es)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시대적, 사회적으로 변화해왔다고 주장하는데<sup>51</sup> 특히 고대 사람들이 야생적, 폭력적 죽음의 공포에 익숙해져서 죽음의 현실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길들여진 죽음'으로 정의하고 이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공적으로 조직된 종교의식을 통해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부정의 의식을 완화했다고 보았다.<sup>52</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 성서의 죽음 이해는 죽음을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48 역대상 21:25에는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마당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다윗과 아라우나의 대화는 아브라함이 헛 족속에게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사는 것(창 23:3-16)을 상기시킨다. A. A. 앤더슨, 윗글, 466.

49 윗글.

50 Bruce C. Birch, 윗글, 626.

51 Phillippe Aries, 「죽음의 역사」(이종민 옮김), (서울: 동문선, 1998), 19-86.

52 박형국, 윗글, 49-50.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며 공동체가 함께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집단적 죽음의 경우에도 같은 유형의 이해로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위의 세 본문을 상호텍스트의 관점에서 서로 함께 비교하여 읽어갈 필요가 있다. 그 본문들은 서로 다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되었을 수 있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대량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을 전승하는 ‘문화적 기억’의<sup>53</sup> 도구이자 수단으로서 사회와 역사적 상황과 서로 관계 맺고 대화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의 세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왕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 전염병이 주어지며 그로 인해 많은 수의 백성들이 집단적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때 종교적 혹은 정치적 지도자의 종교적 행위를 통한 중재적 역할로 그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 본문을 크게 전염병이 발생한 이유와 그로 인해 죽은 사람들 숫자, 그리고 해결 방법에 따라 비교하면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

53 여기서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das kulturelle Gedächtnis) 개념은 의미의 전승과 관련된 기억으로 ‘확정적 객관화’와 ‘상징적 코드화’를 거친 완전한 과거로서의 기억을 의미한다. J. Assmann, *Das kulturelle Gedächtnis: Schrift, Erinnerung und politische Identität in frühen Hochkulturen* (München: C.H.Beck, 2007), 56.



	민 16:41-50 [MT 17:6-15]	민 25:1-18	삼하 24:10-25
사건의 발단/이유/ 이스라엘 호칭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ת בני־ישראל) 이 모세와 아 론을 원망(41절)	‘그 백성’(העם)이 모 압신들에 절함(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ת בני־ישראל) (6절)	다윗의 인구조사, ‘이 스라엘과 유다’(1절), ‘그 백성’(העם, 2절)
징벌	염병(הַמּוֹצָה) (47-48절) [MT 17: 13-14]	염병(הַמּוֹצָה) (8-9절)	전염병(הַבֵּרָה)(13, 15 절) 재앙(הַמּוֹצָה)(21, 25절)
죽은 인원	14,700명	24,000명	70,000명
중재자	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피움 (36-40절: 아론의 아 들 엘리아살, 향로, 제 단, 아웨의 기념물, 회 막)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 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찢 러 죽임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 작마당에 아웨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
결과/해결	전염병이 그침	전염병이 그침, 비느 하스의 집과 평화의 언약, 제사장 직분의 언약	재앙이 그침

세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염병이라고 번역된 하마  
게파(הַמּוֹצָה)인데 삼하 24장에서는 데베르(הַבֵּרָה, 전염병)와 하마게파  
(הַמּוֹצָה, 재앙)가 함께 나타난다. 세 본문이 모두 전염병으로 인한 대량  
죽음에 대해 보도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각각 14,700명, 24,000  
명, 70,000명으로 갈수록 늘어간다고 할 수 있다. 민수기 16장과 25장  
두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광야에서 일어  
난 일이며 사무엘하 24장은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왕권을 세운 다윗 왕

시대에 일어난 일로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출 12:37; 민 1:46)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로서의 이스라엘의 숫자(민 26:51)가 약 60만 명이지만, 왕국으로서 기틀을 갖춘 다윗 왕국의 인구수(삼하 24:9)가 130만명(이스라엘 80만 명, 유다 50만 명)<sup>54</sup>으로 늘어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세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전염병의 이유는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민 16:41/MT 17:6)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신을 섬기며(민 25:1-3)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였기 때문이다(삼하 24:1 이하).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는 앞부분에서 고라와 250명이나 되는 대표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땅이 갈라지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민수기 25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이유는 명백히 종교적인 이유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잊고 머물고 있는 땅의 모압신을 섬기고 모압여자와 동침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이유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지만 민수기 본문들과 비교하여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수기 26장(MT 25:19 이하)에서는 전염병 후에 새로운 세대의 인구수를 세는 것으로 끝났는데,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그에 대한 형벌로 전염병이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인도하고 보호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sup>55</sup> 사무엘하 24장 다윗의 인구조사는

54 이 숫자는 남자 장정, 즉 전쟁에 나갈만한 20세 이상 남자(민 1:2-3; 삼하 24:9)의 수이다.

55 예언자 미가는 출애굽 사건과 바알 브올 사건을 나란히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요구한다(미 6:4-5). 이방신 숭배로 인

인간 왕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 본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백성의 집단적 죽음의 이유는 공통적으로 야웨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민 16장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야웨 하나님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라면 민수기 25장은 모압 사람의 딸들(민 25:1-3), 미디안 여자(민 25:6)와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이방신 숭배에 관한 것으로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인 야웨에 대한 도전이며 다윗의 인구조사는 야웨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염병과 그로 인한 집단적 죽음에 관한 성서 내 본문 상호 비교 연구는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염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였으며 그것은 야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종교적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해왔음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그 해결 또한 제사장의 종교적 행위, 혹은 왕의 제단 설립 등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의 제의적 행위를 통해 가능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즉 광야에서는 제사장 아론이 제단 불을 담은 향로를 피워 백성 가운데로 가져가서 속죄함으로써 전염병이 그치며(민 16:46-48) 제사장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죽임으로 전염병이 그치는데(민 25:7-8) 여기서 비느하스의 행동은 개인의 영웅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식으로 종교적, 제의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56</sup> 다윗 왕국 시대에는 다윗이 선전자 갖의 예

---

한 전염병과 집단적 죽음 이후 다시 새로운 인구 조사(민 26장)는 이전 세대의 끝과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 은혜와 자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R. Dennis Cole, *Number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3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445-446.

56 Martin Noth, *윳글*, 198-199.

언에 따라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야웨를 위한 제단을 쌓고 화목제사를 드림으로써 전염병이 그치게 된다(삼하 24:18-25). 다윗은 ‘야웨가 명령하신대로’(삼하 24:19)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는데 이 표현은 오경 안에 53번이나 사용되지만 역사서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사용되었다.<sup>57</sup> 여기서 다윗 왕에게 야웨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 갓<sup>58</sup> 또한 문제 해결의 중재자적 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 성서의 세 본문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 죽음의 이유는 물론 그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그들의 하나님 야웨와의 관계에서 찾고 있고 제사장, 예언자, 왕 등 종교적·정치적 지도자에 의한 중재적 역할과 질병과 죽음과 공포로부터 백성을 구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책임과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수기의 두 본문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량 죽음이라는 옛 전승을 포로기 혹은 포로 후기 성전을 중심으로하는 제사장 그룹의 관심에 따라 새롭게 배치하고 해석,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의 관심과 의도를 보여준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호칭 또한 제사장 그룹이 선호하는 표현이다. 제사장 그룹 편집자들은 옛 제2 성전시대 예후다 공동체에서 발생한 제사장 직제에 관한 도전<sup>59</sup> 또는 이방 여자와의 결혼 같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

57 Robert D. Bergen, *1, 2 Samu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7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479. 이 표현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제의를 시작했다는 전통과 연결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인간 왕의 왕권 강화를 위한 인구 조사와는 반대로 야웨의 왕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58 ‘다윗의 선전자 된 선지자 갓’(삼하 24:11)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곁에서 조 언했으며(삼상 22:5)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왕실 예언자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역대기는 선지자 갓이 기록한 역사책과 성전 제의와 관련된 그의 명령들이 전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대상 29:29; 대하 29:25). 랄프 W. 클레인, 「사무엘상」(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4), 383. 원제는 Ralph W. Klein, *1 Samuel* (WBC 10; Waco: Word Books, 1983).

59 민 16-17장은 비록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포로 후기 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옛 군주시대 전승자료들을 활용하여 현재와 같은 본문을 완성했다는 것이다.<sup>60</sup> 즉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포로 이후 사고방식의 특징으로서(스 9:2,12; 10:2,10ff.; 느 10:29-31; 13:26-27; 말 2:11ff.) 제사장 편집자는 민 25장에 나타나는 사건과 제사장의 역할을 추가, 수정함으로써 포로 이후 유대 공동체를 모세의 율법에 집중시켰다.<sup>61</sup>

옛 전승은 편집자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었다. 공동체의 문제, 즉 이방신 숭배, 이방 여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공동체 정체성의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 역사에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백성들의 집단적 죽음이라는 공통적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의 제의적, 종교적 행위를 통한 재앙의 제거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광야시대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적 죽음’이라는 문화적 기억과 그에 대한 종교적 해석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변형되고 수정되면서 전해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왕국시대 다윗의 인구조사는 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결국 정죄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나 왕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는 것으로 재앙으로써의 전염병이 그쳤다는 것이다. 전염병의 그침과 관련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제단과 거기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는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했으며(삼하 6-7장) 예루살렘 제의를 시작했다는 핵심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sup>62</sup>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

---

사장 그룹 사이의 갈등과 경쟁을 감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aruch A. Levin, *Numbers 1-20* (The Anchor Yale Bible Commentaries;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3), 430.

60 우택주, 윗글, 183-184.

61 J. Fleurant, 윗글, 293-294.

62 F. 슈톨쯔, 윗글, 503-504.

답(삼하 24:25)으로 끝난다. 예배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진 집단적 죽음에 대한 기억은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범주가 야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그에 대한 형벌로 공동체의 대량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며 그러한 문화적 기억은 공동체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쳤다.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집단적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전 삶의 끝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며 특히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4. 나가는 말

이와 같이 히브리 성서가 씌어지던 시대부터 초기 기독교 시대, 중세, 종교개혁,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집단적 죽음이 있어왔고 이것은 개인적 삶과 사회와 경제 그리고 종교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AD 165년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는 큰 전염병으로 로마와 그리스, 이집트와 소아시아에 걸쳐 약 50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AD 541-542년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1세 황제 때에는 페스트로 보이는 전염병에 의해 2,5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중세 말엽 AD 1326-1353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하여 사망자가 7,500만 명에서 1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sup>63</sup> 19-20세기에 들어서도 콜레라, 스페인 독감, 에이즈 등 전염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

---

63 유용옥, “팬데믹과 기독교선교”, 「신앙과 학문」 26권 1호 (2021년 3월), 7-8.

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고 과학, 의학 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현재에도 조류독감과 SARS(2002-2005), 신종플루(2009), MERS(2019) 그리고 현재 COVID 19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으로 인한 대량 죽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염병에 의한 집단적 죽음에 대한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으로서 종교적 텍스트는 그것이 씌어지던 시대의 사람과 공동체의 사고와 인식,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현실적 사건과의 긴밀한 상관성을 가진다.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승되고 수용되며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히브리 성서 속에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전염병에 의한 대량 죽음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역사적·종교적·문화적 관점으로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와 개인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해석학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죽음과 질병을 마주하는 기독교 교회의 사회적·공공적 역할과 기능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교적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에게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현재 한국 기독교 교회의 목회적 현장은 물론 기독교 대학 교육 안에서 충분한 연구와 토의를 거쳐 기독교 의례, 교육, 상담, 윤리 등 실천적인 방향으로 파생 연구되고 실행되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며 종교 다원적인 한국 사회의 죽음 이해와 더불어 죽음과 관련된 실천적인 제도와 문화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자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전염병에 의한 집단적 죽음을 기술하고 있는 성서본문에 대한 연구과정으로 얻어지는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현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단적 죽음에 대한 공포의 의미와 그 해결방안으로서의 종교적·역사적·사회적 특징과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죽음 자

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며<sup>64</sup> 죽음과 관련된 의례와 교육 등 광범위한 죽음문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열, “코로나 위기 시대와 구약신학의 과제”, 『구약논단』 82집 (2021년 12월), 216-256.
- 구인회,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 (파주: 한길사, 2015).
- 김근진, 『죽음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김영진, “고대 이스라엘의 죽음에 대한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2집 (2004년 1월), 95-113.
- 김학도, 『한국의 전통상제와 성경적 장례의식』 (서울: 바른신앙, 1991).
- 김회권, 『모세오경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박신배, “구약의 죽음과 문화”, 『죽음-삶의 현장에서 이해하기』, 한국문화신학회 제 7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4), 44-67.
- 박충구, “죽음의 공포에 대하여”, 『기독교사상』 719호 (2018년 11월), 143-154.
- 박형국, 『죽음과 고통, 그리고 생명: 신학적 이해』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5).
- 박현정, “독일의 장례 의식과 장묘문화 연구: 근대 이후 장례문화의 변천사와 죽음의 현대적 의미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93권 (2021년 6월), 25-49.
- 배선복, “제사법의 회개에 나타난 책임과 회복의 윤리: 아웬(אָוּען)동사와 레위기 6장 1-7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4집 (2022년 6월), 105-141.
- 왕대일, 『민수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우택주,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례예식”, 『성경과 신학』 26권 (1999년 11월), 29-57.
- \_\_\_\_\_, “민수기의 군주시대 전승과 그 제사장적 편집 작업에 나타난 수사적 의도”,

---

64 죽음의 현대적 의미는 죽음의 양면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즉,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코로나 등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과 장례, 추도문화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현정, “독일의 장례 의식과 장묘문화 연구: 근대 이후 장례문화의 변천사와 죽음의 현대적 의미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93권 (2021년 6월), 39-40.



- 「구약논단」 54집 (2014년 12월), 164-194.
- 유용욱, “팬데믹과 기독교선교”, 「신앙과 학문」 26권 1호 (2021년 3월), 5-28.
- 윤동녕, “대리 왕 제의의 관점으로 본 다윗 왕의 위기 극복과정”, 「구약논단」 57집 (2015년 9월), 126-155.
- 이광복,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39권 (2007년 9월), 29-51.
- 이은애,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매장의 권리: 실정법에 대항하는 자연법적 요구”, 「구약논단」 72집 (2019년 9월), 12-35.
- 이희학, 「구약성서와 조상숭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 임효명, 「사무엘하」 (연세신학백주년기념 성경주석;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정원범, “죽음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접근”, 「생명 신학 윤리」, 「한국기독교윤리학회 논총」 5집 (서울: 한들출판사, 2003), 191-219.
- 한상인, “이스라엘의 매장제도”, 한상인,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고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89-218.
- 앤더슨, A. A., 「사무엘하」 (권대영 옮김), (WBC 주석; 서울: 솔로몬, 2001). 원제 A. A. Anderson, *2 Samuel* (WBC 11; Dallas: Word Books, 1989).
- 아리에스, 필립, 「죽음의 역사」 (이종민 옮김), (서울: 동문선, 1998). 원제 Philippe Aries, *Essais sur l'histoire de la mort en occident du moyen age a nos jours* (Paris: du Seuil, 1975).
- Assmann, J., *Das kulturelle Gedächtnis: Schrift, Erinnerung und politische Identität in frühen Hochkulturen* (München: C.H.Beck, 2007).
- Bergen, Robert D., *1, 2 Samu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7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6).
- Birch, Bruce C., *1 & 2 Samuel* (The New Interpreter's Bible Commentary Volume II; Nashville: Abingdon Press, 2015).
- 브루그만, 월터, 「다시 출추기 시작할 때까지」 (신지철 옮김), (서울: IVP, 2020). 원제 Walter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Biblical Reflections in a Time of Loss, Grief, and Uncertainty* (Oregon: Cascade Books, 2020).
- 붓트, 필립 J., 「민수기」 (박신배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원제 Philip J. Budd, *Numbers* (WBC 5; Waco: Word Books, 1984).
- Childs, Brevard, *Exodus* (London: SCM Press, 1982).
- Cole, R. Dennis, *Number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3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 \_\_\_\_\_, *Number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3C;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 Dozeman, Thomas B., *Numbers*, (The New Interpreter's Bible Commentary Volume I; Nashville: Abingdon Press, 2015).
- Fleurant, Josebert, "Phinehas Murdered Moses' Wife: An Analysis of Numbers 25", JSOT vol.35.3 (2011), 285-294.
- Gottwald, Norman K., *The Tribes of Yahweh: A sociology of the Religion of Liberated Israel 1250-1050 B.C.E.* (London: SCM Press, 1979).
- Hertzberg, Hans H., *I & II Samuel* (OTL; London: SCM Press, 1980).
- 클레인, 랄프 W., 「사무엘상」 (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4). 원제 Ralph W. Klein, *1 Samuel* (WBC 10; Waco: Word Books, 1983).
- Levin, Baruch A., *Numbers 1-20* (The Anchor Yale Bible Commentaries;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93).
- Noth, Martin, *Numbers* (OTL; London: SCM Press, 1968).
- 슈톨쯔, F. 「사무엘 상.하」 (박영옥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원제 Fritz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BAT 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 퀴블러-로스, E., 「죽음의 시간」 (고계영 옮김), (서울: 도서출판 우석, 1998). 원제 Elisabeth Kübler-Ross, *On Death and Dying* (New York: Simon & Schuster, 1970).

#### 검색어

전염병, 집단적 죽음, 제사장 아론, 향료, 제단

[ ABSTRACT ]

## Mass Deaths in Infectious Diseases in the Hebrew Bible

Eun-Ae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Hebrew Bible texts contained and transmitted memories of collective deaths from infectious diseases through text criticism and historical criticism. It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three texts from the perspective of mutual texts that are connected to each other in the overall composition, including the situation, terminology, structure, and content. The texts may have been written at different times, but as a tool and means of “cultural memory” that conveys various memories of mass deaths from infectious diseases, they are believed to have been related to, talked to, and influenced by societal and historical situations.

A cross-examination study of the epidemic and the resulting collective death in the Bible reveals that the ancient Israelite community accepted the epidemic as God’s punishment and understood it to be based on God’s wrath from religious crimes challenging God’s authority. Numbers 16 is a challenge to the authority of YHWH God, who established them as leaders by complaining about the authority of leaders in the Israelite community. Numbers 25 is about the worship of a gentile god, expressed in sexual relationship with the daughters of the Moabites and the Midianite woman. David’s census in 2 Samuel 24 can be seen as a challenge to YHWH’s royal authority.

Therefore, it is recorded that the solution was possible through

www.kci.go.kr

religious acts of the priest or ritual acts of religious and political leader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s altar. In other words, in the wilderness, the epidemic stops when Aaron the priest burns an incense burner containing the altar fire and takes it among the people to atone (Num 16:46-48), and the epidemic stops when Phinehas, the son of Aaron, kills those who serve the Gentiles (Num 25:7-8). Here, Phinehas's behavior can be seen as having religious and ritual meaning as a sense of atonement to clean up the sins of the entire Israelites rather than an individual heroic act. In the time of David, according to the prophecy of Gad the seer, David built an altar to YHWH on the threshing floor of Arauna, the Jebusite, and sacrific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ending the epidemic (2 Sam 24:18-25).

In conclusion, these three texts of the Hebrew Bible show the interventional role by religious and political leaders and the responsibility and function of treating and saving people from disease, death, and fear. The old tradition was reinterpreted according to the editor's era. The cultural memory of 'mass death'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in the wilderness and its religious interpretation were transformed and modif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imes and cultures, affecting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The mass death experienced in history means the beginning of a new life at the same time as the end of the previous life of the Israelite community and,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o be an opportunity to start a new relationship with God.

#### key words

infectious diseases, Mass deaths, the priest Aaron, censer, altar

투고일: 2023년 10월 10일

심사일: 2023년 10월 26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02일

www.kci.go.kr